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강 성 열

(호남신대)

학교 안팎의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쓰신 이성구 박사님께 경의를 표한다. 이 박사님의 논문은 '21세기의 문화와 개혁 신앙'을 구약 전공자의 입장에서 살핀 것으로서, 부제("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 화해와 일치의 삶과 개혁 신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1세기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개혁 신앙의 과제가 화해와 일치의 삶에 있으며, 창조 신학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신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맨 먼저 개혁 신앙이 필요한 현금의 문화적인 상황을 진단("20세기 문화의 반성")하고 다가올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예측("21세기 문화의 흐름")하는 것으로 글 문을 열고 있다.

그의 시각에 의하면 20세기는 과학 기술 문명에 기초한 눈부신 진보와 발전을 이룬 반면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전쟁, 환경 파괴, 인간 정신의 빈곤, 공동체의 파괴 등-를 많이 경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문은 20세기 말의 기본적인 문화 패턴이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편의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생태계 위기로 인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붕괴, 종교와 종교 사이의 분쟁,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것임을 예견한다. 달리 말해서 이 논문은 21세기 문화를 향한 개혁 신앙의 핵심 과제가 갈등과 분쟁을 특징으로 갖는 20세기 문화의 질곡을 극복하는 데 있음을 갈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론 부분에서 이 논문은 개혁 신앙이 추구해야 할 21세기 문화의 화해 사역이 창세기 1:26-28에 서술되어 있는 인간 창조에서 그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번째는 혼자이면서 복수

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개념(‘우리’라는 표현)에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이면서 여럿(남자와 여자)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다른 피조물에 대한 신적인 통치권의 위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근거의 공통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세계-인간을 포함한-가 철저히 화해와 일치로 본질로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바람직한 21세기 문화 창조를 위한 개혁 신앙의 과제를 화해와 일치에서 찾고자 한 것이나 그 신학적인 근거를 창조 신학에서 마련하고자 한 이 논문의 의도는, 우리 시대의 개혁 신앙과 그에 기초한 신학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러한 통찰이 결론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앞부분은 비교적 건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결론 부분은 21세기 문화의 핵심 과제인 화해와 일치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내지는 대안 제시가 불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원칙 천명은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제안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대응축을 구성하는 개혁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도 너무 시간에 쫓겨서일 것이다.

아울러 화해와 일치의 과제를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구약 성서의 한 본문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창세기 1:26-28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함에 있어서나 구약 성서의 생태계 신학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도 자주 논의된 본문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진부한 접근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창조 신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기왕이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본문 접근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니면 구약 성서 전체가 갖는 화해와 일치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 역시 시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박사님의 사역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